

2) 군진세력 출신의 호족

신라의 군진은 처음에 변경의 수비를 위하여 내륙의 요지에 설치되었다. 658년(무열왕 5) 삼척에 설치된 북진은 말갈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고, 782년(선덕왕 3)에 평산(平山)에 설치된 패강진(溟江鎭)은 북변(北邊)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후 해적의 퇴치나 해상 방면의 방어를 위하여 해안의 요지에 군진이 설치되었다. 828년(흥덕왕 3)에 완도의 청해진(淸海鎭), 829년에 남양의 당성진(唐城鎭), 844년(문성왕 6)에 강화의 혈구진(穴口鎭)이 차례로 설치되었다. 이들 군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패강진과 청해진이다.

패강진은 예성강 이북으로 진출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북변 방어의 관문인 평산에 위치하였다. 패강진은 예성강 이북 대동강 이남의 광범위한 변방지역을 관장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었다. 패강진의 군관조직은 민호(民戶)를 둔전병(屯田兵)적인 지방군으로 편제하여 지배·지휘하는 군사조직이었다. 이러한 군사조직을 중심으로 토착민 사이에 강력한 군사적 지배·지휘체계가 성립되었는데, 이 군사적 체계를 지배·지휘한 것은 물론 패강진의 여러 군관들이었다. 이들 군관들은 이러한 군사적 체계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 군사적 성격이 강한 신흥 지방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패강진 출신의 호족 중에서 그 구체적 존재양상을 알 수 있는 사례는 평산 박씨이다. 평산 박씨는 지방관으로서 명주·죽주(竹州)로 이동하여 다니다가 평주(平州)에 정착하여 패강진 지역의 군사적 조직을 통하여 호족으로 성장하였다. 평산 박씨 이외에도 패강진지역에서 성장한 호족으로는 황주(黃州) 황보씨(皇甫氏), 정주(貞州) 유씨(柳氏), 평산(平山) 유씨(庾氏), 동주(洞州) 김씨(金氏), 신천(信川) 강씨(康氏) 등을 들 수 있다.

청해진은 828년 장보고가 설치하였다. 장보고는 당에 가서 서주(徐州)의 무령군(武寧軍)에서 30세에 소장(小將)이 되었다. 그런데 소장은 군사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그는 당에서 무령군의 고급지휘관으로 출세하였다. 당시 한반도 서남해안에서는 신라인을 잡아다가 노비로 매매하는 해적들이 활동하였다. 이에 장보고는 해적을 퇴치하여 해안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해상무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국하였다. 그는 흥덕왕에게 요청하여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에 장보고는 황해·남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서남해안지역에 출몰하는 해적선의 노예무역을 퇴치하였다. 아울러 그는 신라·당·일본 3국 사이의 교통과 무역을 독점하여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왕자가 되었다. 장보고의 청해진세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당시에는 대단한 것이었고, 상당히 독자적인 성격을 띤 지방세력이었다.

한편 북진이나 당성진·혈구진을 기반으로 한 군진세력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군진들도, 패강진이나 청해진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력가들에게 군사력을 제공해주는 근거지가 되었을 것이다.